

# 바다에 빠져도 좋고 빠지지 않아도 좋고!

| 법륜 스님 |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부** 처님의 말씀을 듣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죽림정사로 가는 중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아내 생각도 나고 자식 생각도 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길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그걸 주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종이인가?”

“향을 찢던 종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아직도 향 냄새가 나는데요.”

다시 걷는데 이번에는 새끼줄이 떨어져 있어요. 부처님이 또 주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에 찢던 새끼줄인가?”

“생선을 엮었던 새끼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아직도 비린내가 나는데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향을 찢면 향내가 나고 생선을 엮으면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고귀한 인격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거기에 물들어 나쁜 인격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물든다’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주변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변의 나쁜 환경에 쉽게 물드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런 환경을 멀리하여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나쁜 환경 안에 있되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나쁜 환경을

오히려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첫 번째 사람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친구와 어울리면 자기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게 되고, 화 잘 내고 욕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하다 보면 자기도 덩달아 화를 잘 내고 욕을 하게 되며, 욕심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탐욕스러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대학교에 가니까 대학교에 가고, 결혼을 하니깐 결혼을 하고, 자동차를 사니까 자동차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남들이 하니깐 뒤질세라 자기도 따라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뇌물을 받거나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놓고도 범죄의식이 없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자기만 재수가 없어서 걸려들었다고 도리어 억울해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 화내고 욕하는 사람과 아예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들을 멀리 떠나 그들과 담을 쌓고 지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태도이지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써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단단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깨끗하다, 고상하다, 청정하다고 하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은 그렇게 못살아도 이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물들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주변 환경에 쉽게 물들든지 물들지 않기 위해 피하든지 하는 것은 경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사람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두 번째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에 속박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가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고 있다면,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간혀 있는 거지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런 나쁜 상황 안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도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아요.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어도 자신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물들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은 경계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주변 상황에 물들까봐 피하지도 않고, 또 물들지 않는 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예컨대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과 어울려 함께 다니지만 얼마가 지나면 함께 어울리던 술꾼이 술을 마시지 않고 곧 가 담배를 피우지 않게 돼요. 화 잘 내던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욕 잘하던 사람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치 걸레처럼 상대방의 더러운 것을 닦아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속에 함께 살면서 세상에 물들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그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지요.

비유하자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배를 타고 바다에 놀러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져서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행복하기는커녕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부딪쳐서 힘들어하고, 집에 와서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식과 갈등이 생겨 화내고 짜증부리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거대한 방파제로 파도를 막고는 그 안에서 안온하게 지내는 사람과 같습니다. 괴로움을 낳는 모든 인간 관계를 끊고 홀로 산 속이나 외진 숲속으로 피해 들어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

렇게 세상의 인연을 다 끊어버렸으니 사람이나 일 때문에 괴로울 일이  
 야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방파제 안의 작은 호수에서 평화로이 있는 것 같지만, 파  
 도가 계속 치면 언젠가는 방파제가 무너져 그 평화가 깨질 수 있어요.  
 영원하지 못하지요. 설령 방파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그는 그 호  
 수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으므로 호수에 속박된 제한된 자  
 유를 누릴 뿐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큰 배를 타고 넓은 바다에 나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자유로이 노닐면서  
 도 결코 바다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노는 겁니다. 파도라는 경계에 부딪쳐도 거기에 휩쓸리  
 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은 방파제 안의 조그만 자유에 비교할 것  
 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 역시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에서 자유를 찾  
 고 행복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완전한 자유나 완전한 행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요.

이에 반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다에 빠져도 좋고 빠지지 않아  
 도 좋다는 겁니다. 바다에 빠지면 빠진 김에 바다 밑에 들어가 해삼을  
 건지고 조개를 주워옵니다. 그러니 바다에 빠진다 해도 전혀 괴롭지  
 가 않아요. 바다에 빠지든 빠지지 않든 그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일  
 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은 참 자유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수행  
 을 하는 것도 이러한 참 자유를 얻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이 수행의  
 궁극 목적인 해탈과 열반입니다. (끝) 

• 이 글은 '붓다에게 물들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제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법륜** | 1969년 겨울의 어느 날 오후, 학기말 시험중이라 쫓기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참배 하고 법당을 나서는 법륜 스님을 당시 분황사 주지 스님이고 현재의 은사 스님인 불심도문 스님이 부르셨다. “너, 어디서 오는 길이나?”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오기 전에는?” “집에서요.” “집에 오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갈 거냐?” “집에요.” “집에 갔다가는?” “학교에 가야지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물음에 법륜 스님의 마지막 대답은 “죽 조.” “죽은 뒤에는?” 황당하게 이어지는 질문에 법륜 스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어딜 그렇게 바빠 가는고?” 청천벽력과도 같이 소리를 지른 은사 스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왜 이렇게 바쁘지?’ 법륜 스님은 감전된 듯 움직일 수 없었고, 그 화두는 출가 수행자의 길로 접어드는 다리가 되었다.

현재는, 1988년 설립한 ‘정도회’(http://www.jungto.org)에서 정도 행자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한편,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고 대중이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개인들을 이끌어오고 있다. 1998년에 교보환경문화상 사회교육분야 분상을 받고, 2000년에는 만해상 포교상을, 2002년에는 라몬 막사이사이사상(평화와 국제이해 부문), 2007년 민족 화해상 등을 받았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 붓다에게 물들다

법륜 저 | 산티 권 | 11,000원

『붓다에게 물들다』는 저자 법륜의 저서로 종교서적이다.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아 온 정도회 법륜 스님의 《붓다, 나를 흔들다》에 이어, 붓다를 만나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두 번째 책이다. 법륜 스님은 이번 책에서도 특유의 위트와 구수한 입담, 정곡을 찌르는 어법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생생하게 들려준다.

